

종교영화에 나타난 자유의지에 대한 연구 - 영화 〈데칼로그 8편 : 어느 과거에 관한 이야기 Dekalog : Eight〉 중 자유의지와 책임 간의 변증법적 관계를 중심으로

스공 천양

성균관대학교 영상학과/석사 수료

목차

-
1. 서론
 - 1) 목적
 - 2) 연구 범위 및 방법
 2. 선행 연구
 - 1) 연구 배경과 종교영화
 - 2) 자유의지와 책임 간의 변증법 관계
 - (1) 자유의지의 존재에 대한 주체성(主體性) 탐구
 - (2) 자유의지의 자율성(自律性)에 대한 연구
 - (3) 생명의 본질(本質)에 대한 자각성(自覺性) 비교 연구
 3. 영화 〈데칼로그 8편 : 어느 과거에 관한 이야기〉에 나타난 자유의지
 - 1) 캐릭터 간에 인물 관계 및 책임에 특징 대한 연관 분석
 - 2) 책임 지속하는 ‘과거’의 의미 대한 주제 분석
 - 3) 연관성 있는 상징적인 요소로 표현한 자유의지와 책임 간의 변증법 관계 분석
 4. 결론

요약문

본 논문은 종교 철학적인 영화의 세계관 속에 깃들여 있는 생명에 대한 각종 의제(議題) 중 자유의지와 책임 간의 변증법적 관계를 핵심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자유와 책임, 존재와 허무 등 종교철학에서 말하는 신앙위기(信仰危機)에 관한 갈등 문제가 종교영화 속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를 연구한다.

현대 서양 철학 중 실존주의에 관한 장 폴 사르트르의 '자유의지의 존재'로 인한 주체성 이념'과 비교되는, 계몽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선의지에 기원한 도덕적인 자율성'에 대한 이론 및 니시타니 게이지의 생명 본질에 대한 '자각성'개념을 토대로 영화를 분석한다. 또한 그중에 지닌 개인의 관점과 더불어 자연의 관점에서 자유의지관한 문제는 중국 도가(道家) 철학자 장자(莊子)의 '무위자연(無為自然)'에 대한 사상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보완한다.

폴란드 영화 <데칼로그 8편 : 어느 과거에 관한 이야기>를 사례로 하여 논문의 중심 논제(論題)인 자유의지와 책임 간의 변증법적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진정한 자유의지는 양심의 추구를 바탕으로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주제어

데칼로그, 종교영화, 크쥐시토프 키에슬로프스키, <데칼로그 8편>, 자유의지, 책임, 양심

1. 서론

1) 목적

1895년 영화의 탄생으로부터 지금까지 생명에 대한 각종 의제(議題)들은 영화가 표현하는 세계관의 핵심적인 주제로 자리하며 계속 탐구되어 왔다. 영화는 상업적이며 오락적인, 산업으로서의 외형적 모습과 함께 인류에게 정신적 치료와 반성, 계시 등으로 영향을 끼치는 주제적 영향력을 동시에 발전시켜 왔다.

인간관계에 대한 영화 의제들은 크게 세 가지 관계로 영역을 구분할 수 있다. 즉 사람과 자신, 사람과 환경, 사람과 타자 간의 관계가 그것인데, 본 논문은 각 인간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종교적 신념을 관철시키기 위해 어떤 정신작용을 거치는가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폴란드 영화 〈데칼로그 8편 : 어느 과거에 관한 이야기 *Dekalog : Eight*〉를 텍스트 삼아 자유의지(free will)와 책임 간의 변증법적 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본 논문의 연구목표로 삼는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논문은 전기에 자료 수집과 정리 등의 과정을 바탕으로 개념 분석 연구(Concept analysis study)를 통해서 현대 서양 철학 중 실존주의에 관한 주체성(主體性)¹ 개념과 자유의지, 그리고 책임의 인과 관계를 종합적으로 추리해 보았다. 또한 일본 철학자 니시타니 게이지(Keiji Nishitani)의 생명 본질에 대한 자각성(自覺性)² 개념과 계몽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의 자유의지의 자율성(自律性)³에 대한 이론을 참고하여 간단하게나마 삼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연구(Comparative study)하

¹ Jean Paul Sartre, *L'être et le néant*, Gallimard, 1943, p.559.

² Keiji Nishitani, *Religion and Nothingnes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2, p.77.

³ Immanuel Kant, *Kritik der reinen Vernunft*, LEIPZIG, 1868, p.72.

였다. 그리고 마무리 단계에서는 도가(道家) 철학자 장자(莊子)⁴의 무(無)에 대한 사상을 통하여 이전의 이론들이 지닌 개인의 관점과 더불어 자연의 관점에서 자유의지를 고찰해 보았다.

본 논문의 본문에서는 기독교를 배경으로 한 종교 철학 영화인 폴란드 영화 <데칼로그 8편 : 어느 과거에 관한 이야기>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먼저 본고는 사례 기반의 추론(Case based reasoning, CBR) 방법을 바탕으로 하여 영화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 간의 인물 관계를 파악하고, 이 영화의 주제인 죄책감으로 남아있는 ‘과거’를 살펴보고, 이어서 영화 속에서 볼 수 있는 상징적인 요소 등의 세 가지 테마로 나누어 영화를 고찰하려 한다.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본 연구는 양심의 자유(Freedom of conscience)라고 하는 대한 근원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고는 철학적 배경으로서 장 폴 사르트르(Jean Paul Sartre)⁵의 사상 중 자유의지의 존재로 인한 주체성 이념을 따르고 있다. 이를 간단히 소개하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의지를 가진 주체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와 주체성은 개인의 자주적으로 선택할 때 나타나는 것이다. 사람들이 자주적으로 선택할 때 비로소 책임을 느끼게 된다고 사르트르는 주장한다.⁶ 그렇다면 사람이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할 때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 칸트의 ‘자유의지와 자율성’⁷에 대한 주장과 사르트르의 관점⁸을 비교하는데서 본 연구의 질문이 시작된다. 즉, 자유의지의 존재에 대한 주체는 반드시 개인이어야 할까?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라는 의문이 본고의 시작점이 된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자유의지와 책임 간의 변증법적 관계를 더 깊이 연구해 보고자 한다.

칸트가 정의한 자유의지의 3가지 특징을 살펴보고 자유의지의 선택 기준에 대한 문제를 이론적으로 고찰해보면, 인간의 도덕법칙은 고정불변의 것

⁴ 장자(Zhuang Zhou)는 기원전 3세기 중국 전국 시대 송나라의 저명한 철학자로 도가(道家)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⁵ Jean Paul Sartre, *L'existentialisme est un humanisme*, Les éditions Nagel, 1963, 참고.

⁶ *Ibid.*, p.4.

⁷ Immanuel Kant, *op. cit.*, p.72.

⁸ Jean Paul Sartre, *op. cit.*, 1963. p.4.

이 아니며, 시간이나 환경의 변동에 따라 변하는 것인데 책임에 대한 상벌을 반드시 강제적으로 실행해야 할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⁹ 이에 대하여 사르트르와 칸트 두 철학자의 자유의지에 대한 이론을 비교분석해 보며, 한편으로는 동양 철학의 관점을 보충해 보았다.

위의 각 이론들의 기본적인 차이점으로 인류 자유의지에 관하여 개체와 전체라는 관점에서 그 출발점이 다르다는 점을 먼저 언급할 수 있다. 사르트르는 개인의 자유의지 대한 주체성을 강조하면서 자유의지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반면 칸트는 모든 인류가 선의지에 기원한 도덕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칸트에 따르면 도덕적 제한이 있는 자유의지가 진정한 자유의지라는 것이다. 그래서 자유의지에 대하여 사르트르와 칸트 양자는 서로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자는 자유의지와 책임간의 관계 및 상호작용 대한 공통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사람이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만약 책임지지 않고 과거의 행위를 남겨둔다면 행위자의 자유의지는 과거의 행위로 인해 지속적인 영향과 방해로 받게될 것이다.

그러나 도가(道家) 중심 사상 ‘무위자연(無為自然)’의 이론을 연구해보면 앞서 제기한 책임과 상벌을 반드시 강제적으로 실행해야할까에 대해 여러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세상은 무상하기 때문에 책임과 의무에 대한 상벌이 절대적일 수 없고, 그렇기에 상벌보다 양심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자유의지와 책임과의 변증법적 관계를 영화 〈데칼로그 8편 : 어느 과거에 관한 이야기〉에서 모두 찾아볼 수 있음을 발견하고, 따라서 이 영화의 분석을 통하여 캐릭터 간의 인물 관계와 영화 속에 나타난 ‘과거(past)’의 의미에 대해 연구하는 작업을 거치려 한다.

⁹ Immanuel Kant, *op. cit.*, p.72 참고.

2. 선행 연구

1) 연구 배경과 종교영화

그 탄생으로부터 영화는 종교적 주제에 관심을 보여 왔다. 무성영화(無聲電影)의 시대에서부터 기독교 성경의 인물 이야기를 소재로 영화를 제작하여 종교영화(Religious film)의 장르가 생성되기도 했다. 먼저 종교영화의 특징은 종교를 중심 주제로 다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종교적 주제의 표현 양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교의의 내용을 직접적인 줄거리로 전환하여 표현하는 방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교의의 이념을 영화의 주제로 삼아 상징적인 몽타주(Montage)로 표현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종교철학을 주제로 하여 만든 종교 철학적인 영화표현의 특징은 상징적인 몽타주의 은유 요소를 주로 사용한다. 그리하여 영화의 상징적인 몽타주 기술을 통하여 종교적 교의를 영상 이미지로 표현할 경우, 영화가 표출하고자하는 어떤 감정이나 정신적인 의미가 함축적(含蓄)으로 나타남으로서 시청자들에게 연상적 공간을 유도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면 영화에서 십자가의 작용은 항상 사람들의 정신적인 구원이나 선을 얻는 대표적인 도구로 빗대어 사용되는 대상이 된다. 이러한 사용 방식은 영화 <데칼로그 8편 : 어느 과거에 관한 이야기>중 중복적으로 나타나는 도구 십자형 목걸이를 통해서 주인공의 불안과 신에 대한 의지 등 내면 심리 활동의 상징적인 표현을 관찰할 수 있다.

1923년 무성 영화시대에 나타난 종교 철학적 영화 <십계 Ten Commandments>(1923)는 무성영화이지만 시청자들로 하여금 웅장(偉壯)함을 느끼게 한다. 특히 영화에 관한 조사 데이터(Date)를 보면 당시에 사람마다 영화 마지막 부분의 결과를 보고 마음의 정화를 느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56년 세실 B. 드밀(Cecil B. DeMille) 감독은 자신이 만든 1923년 작품 <십계 Ten Commandments>를 재촬영하였다. 그는 구약의 출애굽기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자 입법자 모세의 전설 가득한 멋진 인생을 재현을 하였다. 하지만 <십계 Ten Commandments>를 중심으

로 창작한 영화의 역사와 시대적 맥락을 정리해보면, 세실 B. 드밀과 폴란드 감독 크쥐시토프 키에슬로프스키(Krzysztof Kieslowski)의 시리즈 영화의 줄거리와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 드러난다.

1989년 TV 시리즈 영화 <십계 Dekalog>의 현대판은 키에슬로프스키의 대표적인 연작 작품으로, 영화에서 감독은 정치에 관한 문제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폴란드 사회의 곤경을 성경을 소재로 묘사하고 있다. 반세기의 시련을 겪고 지난 후, 위의 작품은 기세가 웅장한 명작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다. 그래서 본 논문은 그중 하나를 분석하기로 최종 결정한다. 또한 <데칼로그 8편 : 어느 과거에 관한 이야기>를 선택한 이유는 ‘과거’와 ‘현재’라는 독특한 시간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영화는 독일 나치의 인종주의가 성행했던 제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나치의 인종주의적 차별은 인류사에 남아있는 커다란 상처로서 아직까지도 차마 회고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트라우마가 되었다. 영화는 2차 세계대전의 전후 상황을 보통 사람의 일상생활을 통해 냉철하고 심각하게 표현한다.

영화 <데칼로그 8편 : 어느 과거에 관한 이야기>의 시대적 배경은 다른 <십계> 시리즈의 에피소드(Episode)보다 상대적으로 독립적이고 복잡하다. 그리고 다른 에피소드들과 달리 유일하게 과거와 관련된 이야기만을 다루고 있다.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시대적 배경에 따라 심경(心境)의 변화를 겪고, 자기 과거의 행위 결과 따라 지속적인 책임의 영향과 그에 대한 반작용을 경험한다는 것을 이 영화는 영상을 통하여 토로한다.

또한 종교적인 장르영화는 그가 지닌 깊은 문화적인 매력뿐만 아니라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인물 관계의 복잡한 인간성 묘사를 통해 영화 예술인들의 영감을 더 불러일으킨다고 말할 수 있다. 영화에서 생동감(生動感) 넘치는 캐릭터를 통하여 다양한 문화를 배경으로 한 종교 신앙들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주고, 시청자들을 시각적으로 만족시킴과 동시에 그들의 감정을 건드림으로서 인간이 직면한 공동 과제를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작용을 유발하는 것이다.

기독교의 교리에서 인간의 숙명론은 존재하지 않으며, 기독교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게 주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을 신앙한 사람들이 자주적인 활동력 및 의지를 가지고 있고, 기독교 성경에 언급되듯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 또한 자유의지의 한 부분이라 말할 수 있다. 키에슬로프스키의 영화에는 한 어린 주인공이 어릴 때부터 기독교의 상징적 도구인 십자가를 소중히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를 따라 자기 운명을 지배하지 못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처럼 ‘기독교 하나님을 신앙한 사람들’이 자주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개념의 설정은 엄격한 전제 조건에 있어서 주관적인 것을 포함하게 된다. 그러므로 단순히 어느 종교의 교의를 통해서 인류의 자유의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구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실제로 부족하고 제한적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자유의지에 관한 문제는 철학적으로 함께 정리 분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자유의지의 존재가 있음을 지지하는 관점에 서서, 개인이 책임이 가지고 있는 중대성에 관하여 이론적 범위를 점검하는 것으로 처음의 논의를 시작한다. 그럼에도 영화를 통해 다소 문제를 평면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은 아닌지 역시 의심하고 있다. 왜냐하면 영화의 주인공 노교수의 결정은 당시 특수한 전쟁 환경으로 인하여 내려진 결정으로서 당대 상황에서의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이기에, 엄격한 문책과 비합리적인 책임 추궁을 통해서도 지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본 연구는 사상이 정도에 가까우며 극단적이지 않은 이론을 바탕으로 내용을 전개한다. 동양의 종교 철학과 서양 철학의 논의들에 대한 비교 연구 진행하기로 한 까닭이 여기 있다. 다시 말해, 본고가 일본 철학자 니시타니의 ‘생명 본질에 대한 자각성’과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의 이론 중 ‘주체성(subjectivity)’에 대한 공통성과 차이점을 살피고, 이후 계몽주의 철학자 칸트의 자유의지 대한 자율성 주장과 사르트르의 주체성에 철학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피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뿐만 아니라 본고는 니시타니의 자각성과 칸트의 자율성 간의 공통점, 또한 장자의 사상 중 주체의 범위 대한 결정적인 관점 등에 주목한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종교영화에 나타난 자유의지와 책임 간의 변증법적 관계에서 책임과 자연 법칙이 가지고 있는 연관적인 작용을 연상하고 증명하려 하며, 또한 자유의지 및 책임을 행하는 자기 선택에 대한 내면적

영향 등의 갈등 문제를 종교영화 속의 캐릭터 및 주제를 통해 연구하기로 한다.

2) 자유의지와 책임 간의 변증법 관계

(1) 자유의지의 존재에 대한 주체성(主體性) 탐구

실존주의(Existentialisme)에 관하여 사르트르가 저술한 책 『존재와 무 *L'être et le néant*』는 자유와 허무주의 문제에 관해 건설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았다.¹⁰ 이와 함께 그의 강연집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L'existentialisme est un humanisme*』¹¹는 “도구와 같은 존재에 있어서는 본질이 존재에 앞서지만, 개별적 단독자인 실존에 있어서는 존재가 본질에 앞선다. 인간은 우선 실존하고 그 후에 스스로 자유로운 선택과 결단의 행동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만들어 나간다”¹²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존재와 무』 중 자유의 실질(實質)등에 관한 내용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사람의 자유가 저지 받을 수 없음을 상세히 논술하였다.¹³ 인류는 일상생활에서 가끔 자신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음을 느끼는데, 인간의 다양한 환경과 자유의 관계가 지닌 문제는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문제 제기와 해결을 하였다. 즉, 선택의 자유와 얻는 자유는 다르기 때문에 자유는 ‘환경’의 의미이며, 환경은 사람이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람의 여러 환경 중 하나는 ‘과거’와 연결된다. 과거는 역사처럼 변할 수 없기에, 과거에는 사람의 존재만으로 비로소 의미를 얻을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존재와 무』의 이론을 요약 분석하면 사르트르가 정의한 자유의지가 개인을 주체로 하는 주장임을 이해할 수 있다.

자유의지의 존재에 대한 주체성 이념이 사르트르의 사상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다. 이처럼 주체성을 따라가 보면 인간의 본질이

¹⁰ Jean Paul Sartre, *op. cit.*, 1943, p.548.

¹¹ 본 강연은 1946년에 이루어졌지만, 본고가 참고한 서적은 1963년에 발간된 것임을 밝힌다.

¹² Jean Paul Sartre, *op. cit.*, 1963, p.4.

¹³ Jean Paul Sartre, *op. cit.*, 1943, p.548.

일련의 자유 선택을 통하여 실현되고 있으며, 자유의지의 존재 유무 등의 문제로 귀결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물질문명(物質文明)과 과학 기술이 끊임없이 번영하는 현대 사회에서 신앙의 위기가 부단히 제기되고 있으며,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만의 독자적 개성과 인격을 점점 상실(喪失)하고 있음도 알게 된다. 실존주의가 강조하는 인간의 주체성은 사람의 존재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기에 그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앞서 언급한 사르트르의 1946년의 강연을 살펴보면,¹⁴ 인간의 주체성은 실존주의 철학의 출발점으로서 인간의 자유로운 존재는 모든 가능성의 원천으로서 표현되고 있음이 드러난다. 따라서 자유의지적 존재에 대한 주체성이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인간은 자유의지와 책임의 인과관계(因果關係)를 종합적으로 추리할 수 있는 존재임이 드러난다. 이런 맥락에서 사람은 자유의지에 따라 자신의 목적과 행위 동향을 결정할 수 있으며, 자기가 선택하는 결과에 관한 행위와 반응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인간 행위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

(2) 자유의지의 자율성(自律性)에 대한 연구

칸트는 그의 저작 『실천이성비판 *Kritik der reinen Vernunft*』에서 인류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자유의지와 선의지(善意志) 등의 문제에 있어서 실천의 주체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도덕법칙적인 행위의 본질에 대한 내용을 표현하였다. 저서를 통하여 칸트는 주체 존재의 의미가 실천의 방식만으로 증명되어질 수 있고, 자유의지의 선택 기준은 이성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¹⁵ 그에 따르면 순수한 의식은 주체의 존재를 확증할 수 없으며, 사람의 행위 실천을 통해 인간의 주체 존재가 분명하게 확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성 도덕법칙은 자유의지의 존재가 지닌 유일한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자유의지의 존재에 대한 주체 문제에 대하여 그는 다시 논증과 설명을 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르네 데카르트(René Descartes)의 대표 저작(著

¹⁴ Jean Paul Sartre, *op. cit.*, 1963 참고.

¹⁵ Immanuel Kant, *op. cit.*, p.72.

作) 『방법서설 *Discourse on the Method*, Focus Publishing』 중에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¹⁶라는 사상은 존재를 강조한 칸트와 달리 주체성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칸트가 정의한 자유의지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그 특징을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자유의지의 주체는 인간의 보편적인 도덕법칙에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실천을 통해 주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로 자유의지의 자율성에 따라 선의지(善意志)가 원칙적으로 행위 선택의 기준에 있다는 점 또한 언급할 수 있다.

(3) 생명의 본질(本質)에 대한 자각성(自覺性) 비교 연구

세계 3대 종교는 일반적으로 불교(佛敎), 이슬람교(伊斯蘭敎), 기독교(基督敎)를 포함하고 있으며 각각의 종교에 대한 종교적 교리도 존재한다. 신도들은 믿음을 가지지만 진정한 종교는 교조주의(敎條主義, Dogmatism) 개념처럼 단순히 신(神)이나 교리 등을 숭배(崇拜)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사람 자신에게 주체성이 있으며, 진실에 대한 실재적인 자각 있어야 하는데, 따라서 생명의 본질에 대한 자각성이 중심이 된다.

일본 철학자 니시타니가 영어로 재출판한 저서 『종교와 무 *Religion and Nothingness*』에서 드러나는 그의 주장은 불교의 교리 중 공(空, Śūnyatā)의 개념 대한 동양의 종교철학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서양철학의 허무주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에 꽤나 중요해 보인다.

원래 니시타니는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의 학생이었는데, 그는 자신이 하이데거로부터 받은 영향을 저서의 자료로 참고하였다. 본고가 니시타니의 저서를 비교 분석하여 얻은 결과에 따르면, 현대 서양철학 중 실존주의(Existentialisme)에 관한 주체성 개념¹⁷과 니시타니가 주장한 사상¹⁸에는 공통성이 있다. 요컨대, 인간이 스스로 주체성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진실

¹⁶ René Descartes, *Discourse on the Method*, Focus Publishing, 2007, p.113.

¹⁷ Jean Paul Sartre, *op. cit.*, 1943, p681.

¹⁸ Keiji Nishitani, *op. cit.*, pp.77-168.

에 대한 실재적인 자각(自覺)이 있다'라는 개념이 이 둘은 서로 공유한다.

하지만 더 깊이 생각하면 양자의 차이점도 찾을 수 있다. 사르트르가 주장한 실존주의는 휴머니즘(Humanism)에 대한 개념과 더 가깝고 개인 주체성이 절대적임을 사르트르 본인도 인정하고 있다. 그것과 비교하면 니시타니의 돈오(頓悟)에 관한 이념은 사람의 절대적인 제한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천천히 인도한 사상 경계로서 그 범위가 더 넓다.

한편, 칸트 이론의 자유의지의 자율성은 마음속 선의지를 중심으로 존재하는 신앙으로 인도(引導)하는 도덕법칙과 중요한 관계가 있다. 즉, 도덕적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삶에 가장 높은 가치가 있다(問心無愧)는 주장을 칸트는 답는다.

이들 삼자는 서로 주체 대상의 정의가 일치하지 않기에, 생명의 본질(本質)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여도 불교의 공(空, Śūnyatā)이라는 한 가지 방면으로 설명하는 것이 불충분하거나 누락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이에 중국 도가(道家)의 철학자 장자(莊子)의 사상을 결합하여 분석하는 것을 결정하였다.

장자의 사상이 나타난 책 『장자 莊子』 중 내편(內篇)의 '소요유(逍遙遊)'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약부승천지지정(若夫乘天地之正), 이어육기지변(而御六氣之辯), 이유무궁자(以遊無窮者), 피차오호대재(彼且惡乎待哉), 고왈지인무기(故曰至人無己), 신인무공(信人無功), 성인무명(聖人無名)”. 이 열두 자의내용을 보면 장자(莊子)가 주장한 자유의지는 자연의 무(無) 중에서 생기고 개인이나 도덕법칙을 강조한 주체보다 자연의 도(道)를 주체로 제기한 견해로서 더 독특하고 심오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도가(道家) 중심 사상 '무위자연'이 내포한 의미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소극적인 뜻이 아니라, 만물(萬物)의 정신이나 영혼의 자유 그리고 본성을 따라 자신의 존재를 자각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장자의 사상은 간접적이고 신축성 있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3. 영화 <데칼로그 8편 : 어느 과거에 관한 이야기>에 나타난 자유의지

1) 캐릭터 간에 인물 관계 및 책임에 특징 대한 연관 분석

영화 <데칼로그 8편 : 어느 과거에 관한 이야기> 중 '조피아 교수와 엘리자베타가 처음 만나는 장면'은 육순이 넘은 노교수의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윤리 강의가 시작되기 전이다. 두 주인공이 처음 인사하는 대사를 보면, 노교수가 그녀를 처음 만난 것이 아니고 미국에서 이미 한번 만난 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젊은 엘리자베타는 노교수의 저작 번역을 도운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교환학생 신분으로 '특별히' 미국에서 그의 세미나 강좌를 들으러 온 것이다. 이 장면을 통해 감독은 엘리자베타의 자유의지에 따라 책임을 지속하는 과거의 진실을 자주적으로 찾기 위한 즐거리의 동기로 삼으려는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의 강의 시간에 노교수는 학생들의 질문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아이의 생명보다 중요한 건 그 무엇도 없다"라고 그는 말한다. 그 순간 엘리자베타는 의식적으로 일어나서 연단으로 다가간다. 이어 엘리자베타는 "더욱 똑똑히 녹음하고 싶어서 이동하는 것"이라고 핑계 댈다. 그리고 동시에 노교수의 견해에 대하여, 자신의 과거를 예로 들어 이야기를 들려준다.

1942년 2월의 독일 점령 당시,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는 마침 추운 겨울이었다. 여섯 살 난 유대인 여자아이의 상황이 위태하였고, 새로운 후견인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당시에 그의 옛 보호자는 그를 잠시 돌볼 새로운 후견인 재봉사를 찾아 나섰는데, 때마침 나치의 대량수색으로 인하여 검거당한 탓에 여자아이의 기독교 세례 증명서 검증이 요구되었다. 그리하여 옛 보호자는 그녀에게 젊은 천주교인(교부모)을 찾아준다. 그런데 바로 세례를 받기 전 순간 그 젊은 부부는 번복한다. 그들의 유일한 이유는 십계명의 제 9계명인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를 위반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위증을 해야만 여자아이의 목숨을 구할 수 있기에, 옛 보호자는 어쩔 수 없이 모험하고 통금시간 전에 그녀를 데리고 떠난다. 그렇게 해서

아이의 생사는 예측할 수 없게 된다. 엘리자베타의 결과 없는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난다. 노교수는 일시적으로 낮을 잃는 것처럼 그녀가 거머쥔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세부 묘사는 주인공의 자유의지 대한 주체성에 따라 본질적인 책임의식이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과거의 흔적이 항상 마음에 있으며, 추억을 잊을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수업이 끝난 후,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교수와 엘리자베타는 그 과거의 대한 이야기의 당사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여기까지만 보면 사람들은 40년 전의 젊은 천주교인 부부가 공포감을 느껴서 보호를 기피한 상황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은 그 일이 지난 후 노교수는 많은 유대인을 구해냈고, 그날에 “하느님은 사람들이 거짓 증거를 하면 안 돼”라고 말한 것은 핑계에 불과했다. 이것으로부터 그의 변명은 구실에 지나지 않고 달리 속사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진실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러한 의문은 두 사람이 노교수의 집에서 하룻밤 같이 과거를 회상하며 이야기하는 중 해결된다. 그러나 여기서 감독인 키에슬로브스키는 직접 진상을 풀지 않고 영화 중간 부분에 특별히 한 장면을 삽입하여 해결한다. 그는 바로 두 주인공이 40년 전 그 사건이 일어난 동네를 찾아 다시 돌아가는 장면이다. 이곳에서 엘리자베타는 돌아와 학교에서 언급한 내용을 다시 말한다. 이번에는 좀 더 감정을 실은 엘리자베타의 진심이 보인다. 내면에서 그녀는 자신이 ‘구제받는 자’이기 때문에 굴욕감을 느꼈다. 약간은 극단적이지만, 그러한 굴욕을 통해 그녀는 자유의지를 따르고 싶지만 선택할 수 없는 무력감과 더불어, 더욱이 구제하는 자에게 자비조차도 받지 못해 상처를 얻었음이 드러난다.

영화에서 두 주인공의 오해가 풀리지 않았을 때 이러한 장면을 삽입한 이유는 다름 아닌 ‘자유의지와 책임 간의 상호작용’을 뚜렷하게 증명하기 위해서임을 알 수 있다. 구제하는 자와 구제받는 자의 입장을 바꾸어 체험 시킴과 동시에, 관객들은 엘리자베타가 과거에 살던 곳을 다시 둘러보는 이중적 동기를 추론하게 된다. 엘리자베타는 노교수가 과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 반면 노교수는 자유의지에 따라 하였던 당시의 결정을 후회한다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자책하고 있다. 때문에

노교수는 조금 걱정된 심리적 반응을 보인다.

두 주인공이 40년 전의 그 장소에서 잠시 얘기한 후, 함께 노교수의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 사건의 진상은 밝혀진다. 그 당시 노교수의 남편은 지하 저항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새로운 소식을 전해 받은 직후였다. 즉, 재봉사는 나치의 스파이 때문에 여자아이의 세례를 통하여 지하당을 검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교수가 접한 소식이 정확하지 않은 소식이었음을 깨달았을 때 이미 너무 늦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 후 두 사람의 진지한 대화 내용 속에 두 가지 중요한 인문적인 토론 주제가 나타나게 된다. 바로 “아이의 생명보다 조직의 원대한 이상이 더욱 중요하지 않다”¹⁹⁾는 것과 구제하는 자의 ‘특질’은 선의지를 기준으로 하며, 신을 전제하지 않고도 선의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그들은 칸트의 내면적 도덕법칙 대한 자율성의 개념에도 동의한다. 영화 후반부에 진상이 밝혀지지만, 그 전의 장면에서 엘리자베타가 혼자 말없이 책을 펼쳐 볼 때 ‘불이 켜졌다가 꺼졌다가 결국 또 밝아지는 이미지’는 그 때문에 등장한다고 볼 수 있다.

이밖에도 영화에는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는 미장센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 노교수가 벽에 빼딱하게 걸려 있는 액자를 똑바로 거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하지만, 엘리자베타의 경우에는 동일한 행위를 단 한번 하는 것으로 묘사되는 것도 그러한 예다. 이런 캐릭터 행위의 특징은 사람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도덕의 기준이 사라지거나 비뚤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자유의지에 따라 마음속에 지속되는 과거의 책임을 일단락하여야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영화 마지막 장면을 보자. 엘리자베타는 그때 자기를 구하려고 도와준 재봉사를 만나기 위해 재봉사의 가게에서 그를 만난다. 이때 그는 이미 노쇠해지고 오히려 과거의 어떠한 일에 관해서도 회상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그는 그녀가 옷을 만들 것인지를 묻는다. 이런 장면의 설정은 낡은 재봉사가 과거를 도피한다기보다 그녀에게 도덕적 부담을 지우고 싶어하지 않

¹⁹⁾ 영화의 대사 중에서.

려한다는 그의 의지를 드러낸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영화의 마지막 부분, 재봉사가 창문을 통해 다른 두 주인공을 바라보는 장면에서 세 사람의 간접적인 인물 관계가 암시되는 것이다.

이처럼 영화 <데칼로그 8편 : 어느 과거에 관한 이야기>에 나타난 자유의지와 책임 간의 변증법적 관계는, 직접적인 상벌이 반드시 강제적으로 실행되지 않더라도 양심을 기반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원래 재봉사의 직업은 꿰맨 곳을 잇고 해진 곳을 기우는 것인데, 전쟁에서 받은 상처와 명든 가슴을 고치기 위해 그가 타인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영화는 ‘과거’를 통해 어떤 사람들은 정신적 충격을 준 과거를 대면할 필요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내버려 두는 것 더 좋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2) 책임 지속하는 ‘과거’의 의미 대한 주제 분석

<데칼로그 8편 : 어느 과거에 관한 이야기>는 <데칼로그>의 다른 에피소드들보다 독립적인 인간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이 서로 연결되어 만들어지는 커뮤니티(Community)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섬이 바다의 해수면 위와 아래의 분계선 대해 가지는 이미지에서처럼, 이때의 섬은 드러나는 표상이며, 수면 아래는 감춰진 진실을 뜻하게 된다. 바다 아래의 세계를 볼 수 없는 것처럼, 사람 내면의 정신세계도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운명은 마치 바다처럼 변덕스럽기도 하다. 따라서 <데칼로그 8편 : 어느 과거에 관한 이야기>의 내용은 표상으로 드러난 ‘현재’와 감춰진 진실을 품고 있는 ‘과거’의 이야기에 관한 영화라 말할 수 있다.

영화 중 두 캐릭터는 모두 전쟁을 체험한 사람들로, 외로움도 느끼고 고민도 많지만 어느 누구에게 쉽게 의지 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기억을 갖고 있다. 전쟁은 극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간성(人性)이 드러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으며, 인간의 가장 고귀한 품성이 드러나기도 한다. 특히 이때 영화의 엘리자베타처럼 상처받게 되는 사람은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된다. 한편, 조피아 교수처럼 상처를 주게 되는 사람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게 된다. 이

처럼 극중의 두 사람은 상처를 주고받으며 씻을 수 없는 상처 때문에 괴로워한다. 이후 이들은 생명에 대한 진실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서로 대화하게 된다. 그 결과, 서로 오해를 푼다. 마침내 엘리자베타는 조피아 교수를 용서하는데, 이것은 실은 자신을 괴롭혀 온 기억에서 해방되는 것이며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기도 한다.

언뜻 영화의 주제는 십계명을 모티브로 했지만 감독은 신성을 찬양하기 위해 이 영화를 만든 것 아니라, 인성에 관한 얘기를 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전쟁이란 극한 상황에서 비롯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보편적으로도 중요하다고 여기는 생명의 가치를 드러냄으로써 박애(博愛)의 가치를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자유의지와 책임 간의 변증법 관계를 이 영화에서 추론할 수 있다. 사람의 자유의지를 통해 드러난 행동이 책임에 미치는 영향은 이후 오랫동안 자유의지에 반성 효과를 준다. 다음의 예를 보자. 영화는 아이의 손이 한 어른의 손에 붙들린 채 클로즈업된 장면으로 시작한다. 이 장면은 영화의 핵심인 '과거'에 대해 예고한다. <데칼로그 8편 : 어느 과거에 관한 이야기>가 <데칼로그>의 다른 에피소드들과 다른 점은 이미 과거에서 벌써 일어난 사건이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 과거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로 내용이 전개된다는 것이다.

수업 중 남학생은 거짓증거의 동기를 '두려움'이라 얘기하는데, 노교수는 "그 결정을 정당화 할 수 있을까요?"라고 질문한다. 이 부분에서 노교수의 교육 이념이 학생들이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를 따라 믿을 만한 답을 스스로 찾도록 이끄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질문을 노교수 자신은 스스로에게도 한다. 즉, 과거의 사건에 대해 노교수 본인도 지난 행동을 후회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 후 감독은 '과거'에 대한 답을 당장 제시하지 않고 엘리자베타의 입장에서 드러낸다. 관객들은 당장 사건의 내막을 잘 알지 못하더라도 일단 엘리자베타의 내면에 집중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캐릭터의 심정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아마도 감독은 사건의 진상을 먼저 알 수 있는 것보다 과거를 통해 드러내는 것이 더욱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오해가 풀린 후, 엘리자베타는 당시 자신의 손을 잡고 자신을 데려다 준 사람에게 같이 가자고 제안하지만, 조피아는 거절한다. 이런 것을 보면 비록 사건

의 진상은 규명됐지만 마음속에 한 번 받은 상처는 쉽게 털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노교수 집에 걸린 비뚤어진 액자나, 엘리자베타가 자꾸 목걸이를 어루만지는 습관 등을 통해 영화는 ‘과거’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드러낸다. 나치의 반인륜적인 행동이 인간 안에 내재된 ‘악’의 극대화된 인상이라면, 반대로 인간 조피아에게 자책하는 마음의 ‘선’이 포함되어 있어서 뒤늦게나마 발휘되는 것이다. 이처럼 <데칼로그 8편 : 어느 과거에 관한 이야기>는 십계 시리즈 중에서도 역사적으로 큰 배경 속에서 따뜻한 생명력이 느껴지는 영화이다. 두 주인공의 과거와 현재의 시공을 초월(超越)해 이어지는 자유의지와 책임의 갈등 표현이 영화의 주제적 깊이를 만들고 있다.

3) 연관성 있는 상징적인 요소로 표현한 자유의지와 책임 간의 변증법 관계 분석

영화 <데칼로그 8편 : 어느 과거에 관한 이야기>에 관한 제목의 해외 번역판의 부제는 “마음의 죄책”(心靈之罪)²⁰이다. 이러한 철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영화의 주제는 영화의 표현 수법 중 상징적인 요소를 사용하기에 매우 적합하다. 따라서 영화에서 연관성이 있는 장면이나 도구, 혹은 색채의 변화 등 세부 사항에 관한 묘사를 분석할 수 있다.

영화를 봤을 때 관객들은 중복적으로 나타나는 세 가지 오브제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꽃과 십자가 그리고 액자’이다. 그 중에 먼저 ‘꽃’이 나타난 장면은 두 가지 용도로 구분할 수 있다. 공원의 잔디밭에서 성장한 야생화 장면은 영화의 오프닝 장면과 프린트 장면 간의 교량이 된다. 다음으로 아침 천지의 작은 들꽃들은 (후에 나타나는 꽃과 달리)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과거 기억 속의 연약한 소녀를 상징한다. 비록 들꽃은 기억 속에 숨겨져 있고 쉽게 발견할 수 없지만, 마음속에 숨겨진 주인공 노교수의 책임감을 꽃을 통해 상징적으로 영화는 표현하고 있다. 생명은 천지 사이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융합되는 것임을 꽃을 통해 알 수 있다.

²⁰ 영화의 중국 번역판 참고.

영화에 나타난 두 번째 중요한 상징적 도구는 주인공 엘리자베타의 ‘십자형 목걸이’이다. 이렇듯 신(God)을 대표하는 도구로서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있어 불안된 신상과 같은 역할을 한다. 사실 어떤 것이든 주인공의 불안과 신에 대한 의지를 상징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과거의 상흔이 있는 사람은 정신과 마음속에 한 가닥의 위안이 같은 존재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런 맥락에서 영화는 보이지 않는 내적 수요를 물질적인 차원의 동작과 도구를 통해 표출해 드러낸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드디어 단서를 가지고 있는 제3의 인물이 나타난다. 과거로부터 도피한 그 인물이 잊어버린 것을 우리는 증명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오래 전부터 사용했던 낡은 잡지에서 그와 관련된 것을 찾아낼 수 있게 된다. 또한 창문을 통해 밖을 바라보는 그의 동작은 사람들의 과거에 대한 정서, 즉 지난날에 대한 마음 속 깊은 곳으로부터의 추구를 보여준다고 평할 수 있다.

4. 결론

키에슬로프스키의 영화는 비록 대부분 현실적인 소재와 제재를 중심으로 만들어지지만, 지속적으로 다뤄지는 사람들 간의 사고로 인해 촉발된 사건과 갈등의 과정을 통해 작가의 휴머니즘적 주제의식을 엿보게 해준다. 이러한 주제적 관심은 영화 〈데칼로그 8편 : 어느 과거에 관한 이야기〉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캐릭터의 특징, 인물 관계와 주제 등에 관한 융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와 인문주의 철학자 칸트의 자유의지에 대한 개념적 정리들을 적용해 보았다.

사르트르의 주체성을 강조한 자유의지 및 칸트의 자율성을 강조한 자유의지의 근원적 차이를 사람의 내면적 도덕법칙에 관한 선의지에 대한 신앙 존재 여부의 문제라고 본 연구는 생각하고, 이를 거시적 차원에서 장자의 사상 중 ‘무위자연’의 의미를 통하여 찾아낸 ‘양심의 추구에 대한 자유의지’로 결론지어 제안하고자 한다. 즉, 진정한 자유의지는 인류가 양심에 의지

하여 자유를 추구할 때 발생한다는 것이 본고의 요지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화 〈데칼로그 8편 : 어느 과거에 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종교영화에 나타난 자유의지에 대한 문제 중 ‘자유의지와 책임’의 관계와 상호 작용이 어떻게 표현되었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인간은 자유의지에 따라 자신의 선택을 결정할 때 그의 신앙적 양심과 도덕적 주체의 기준을 보이기 된다. 끝내 자유의지의 근원은 양심의 자유(Freedom of conscience)를 근거로 삼고 있는 셈이다. 그 양심의 자유는 역설적으로 선의지에 대한 신앙에서 만들어지는 정신적인 열매로 자유의지의 선택에 따르는 ‘책임’에 대한 주체 스스로의 책임의 근거가 된다. 영화 〈데칼로그 8편 : 어느 과거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인간 마음속에 존재하는 선의지에 대한 신앙이 자유의지의 근원에 있다는 종교철학적인 진단을 본고는 영화적으로 풀어내고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Immanuel Kant, *Kritik der reinen Vernunft*, LEIPZIG, 1868.

Jean Paul Sartre, *L'être et le néant*, Gallimard, 1943.

_____, *L'existentialisme est un humanisme*, Les éditions Nagel, 1963.

Keiji Nishitani, *Religion and Nothingnes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2.

René Descartes, *Discourse on the Method*, Focus Publishing, 2007.

기타

크쥐시토프 키에슬로프스키 감독, 〈데칼로그 8편 : 어느 과거에 관한 이야기
Dekalog : Eight〉, 1989.

Abstract

Research on Free Will in Religious Film - Focusing on the dialectical relationship between free will and responsibility in Film *Dekalog: Eight*

SIKONG, Qianang

Sungkyunkwan University Film, TV and Multimedia

Master Candidate

In this paper, I chose one of various agenda for life in a philosophical film world view and explored the core of dialectical relation between free will and responsibility. Freedom and responsibility, Existential and inferiority, etc, The conflict of humanity on the crisis of faith have been A comparative study based on the discussions of East Asian religious philosophy and Western philosophy.

Including compare the three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with Jean Paul Sartre's 'subjectivity ideology due to the existence of free will' on existentialism in contemporary Western philosophy and The theory of the 'moral autonomy originating in the good will' of the Enlightenment philosopher Immanuel Kant and Concept of 'consciousness' of the life essence of Keiji Nishitani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film. In addition, the problem of free will in the viewpoint of nature, along with the individual's point of view, is comprehensively supplemented by the idea of the "nothingness" of the philosopher Zhuang Zhou.

A selection of the Polish film *Dekalog: Eight* and make a basic conclusion of the final by argumentation and analysis as a case of the dialectical relation between the free will and responsibility.

Keywords

Dekalog, Religious film, Krzysztof Kieslowski, *Dekalog : Eight*,
Consciousness, Free will, Responsibility, Conscience
